천국, 자연산과 양식

(눅13:18-21)

18.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0.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겨자씨와 누룩비유 우리가 참 자주 대하지요.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너무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이 말씀 자체가 기쁨을 줘요.
이 귀한 비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천국, 자연산과 양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천국, 천국이 있는데 자연산 천국이 있고 양식 천국이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산 회를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가격차이가 그러니까 한 3~4인이 가서 보통 양식 회를 먹으면 10만원 정도면 뭐 괜찮은 집에서, 이 강릉 같은 경우에 괜찮은 집에서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산 횟집에 가면, 그만큼 양을 먹으려면 20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산 회를 먹은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먹었느냐 라는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인생에 커리어에요, 커리어, 저 같은 사람 한 테는.
제 인생의 역사 중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그만큼 비쌉니다, 자연산 회라는 게.
맛도 그만큼 다릅니다, 더 쫄깃쫄깃 하지요.
양식 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입에 넣으면 녹는다고 말하는데, 입에 넣어서 녹는 회는 그건 좋은 회가 아닙니다, 양식이에요.

쫄깃쫄깃 하면서 입에서 씹는 맛이 느껴지는 게 이게 자연산입니다.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회 도사 되시는 분에게 설명을 들었어요, 시식을 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게 자연산 회를 먹는 건데, 천국도 자연산 천국이 있고 양식 천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이 자연산일 때는 상황이 거꾸로 되어서 전혀 그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천국의 진가가 사라져 버립니다.
천국은 양식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맛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 우리와 관계 안에 있는 이 천국,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 신학자들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직장생활 사업하고 있는 나, 자식 키우고 있는 나와 관련 된 천국은, 동전처럼 앞뒷면이 있습니다.
그 앞면을 주님께서 겨자씨로 비유를 들어 말씀해주시고, 그 뒷면을 누룩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천국의 앞뒷면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단어인데 두 가지 특성으로 우리와 관계합니다.
우리와 관계 될 때, 천국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위험해 질 수 있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천국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 천국을 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만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고 하늘 천국을 인정을 하지만, 그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갈 곳으로 확신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분명히 골로새서 우리 어제 함께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위에 것을 찾으라 그곳에

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스테반이 죽을 때 본 그 천국을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요.
죽은 다음에 간다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면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이 우리가 흔히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파트에서, 하늘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고, 땅이 아닌 하늘 그 천국을.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린 이것을, 내가 장갑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갑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이 두 가지 천국의 의미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의미는, 거의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첫 번째 것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로 우리 마음이 가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악센트가 가 이쪽에 와 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내 인생의 비전이 뜻으로 되기를 바라고 하는, 이쪽으로 다 치우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갖고는 절대로 그쪽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겨자씨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 채소로 분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추씨가 떨어져 있고 무씨가 떨어져 있고 시금치 파나 열무나 이런 씨가 뿌려져 있는 가운데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다 자라고 나니까 얼마나 크냐 하면 한 3~4미터까지 자랍니다.
사람이 큰 말을 타고 갈 때, 그 말을 탄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 가려질 수 있을 정도로 큰데, 한 기본줄기에서 가지를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줄기 자체가 처음부터 땅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라일락처럼 그렇게 큰 덤불을 이루는 나무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채소밭에 서 있기가 정말 민망한 것이죠.

배추 무 파 시금치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울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겨자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천국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의미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뿌리는 씨는 한 종류의 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런데 밭이 네 가지였어요, 밭이.
네 가지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거꾸로예요.
마음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가 아니라 마음은 하나를 얘기하는데, 씨는 여러 가지가 뿌려집니다.
무씨도 뿌려지고 뭐 배추씨도 뿌려지고 시금치 씨도 뿌려지고 그리고 그 중에 겨자씨가 같이 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뿌려지는 씨 중에서 겨자가 제일 작았다는 얘기에요, 근데 제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의 이 씨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이 접하게 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접하게 되는, 살아 있는 동안에 마음이 접하게 되는 사실들, fact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 내가 누구와 결혼했다, 내 자식이 누구다.
이거 다 Fact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다 Fact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도저히 똥 냄새와 똑같은 생선 삭힌 것을 즐겨 먹는다. 그런 냄새가 나는 생선을…
다 이게 Fact입니다.
인도에 갠지스 강이 흐르고 있다. 다 Fact입니다.

모~든 Fact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 내 마음에 접해지는 Fact 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타지마알 궁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인도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Fact는 Fact이지만 내 마음에 부딪쳐오는 현실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정말 거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생선을 삭혀서, 삭혀서 배설물 냄새가 나도록 해 갖고 먹는다, 우리나라 홍어회랑 비슷하게, 그것보다 더 지독하다 그래요.
먹는다는 이 사실은, 내가 그것만을 먹어야 된다, 먹을 게 그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내 현실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말면 됩니다.

근데 사실들 중에서, 내 마음에 파고드는 사실들, 내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실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실들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현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 현실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에요.
내 마음을 많이 주면, 사실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큰 현실이 되고, 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엄연한 사실이라도, 그것은 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9.11테러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온 세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3,000명이 넘게 죽고, 그 쌍둥이 빌딩 2개가 다 폭삭 내려앉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그런 공격을 받은 것이에요.
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졌을 그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이 1개월 남았는데 주인이, 1억5천에 전세로 있는 이 집을, 전세금을 요새 전세금이 막 뛴다 그러잖아요?
1억을 올려서 2억5천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자니 3개월 뒤에, 내 아이가 대학 입시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떡합니까?
9.11테러사건이, 사실이라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객관적이라는 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상태 이전의 상태로 볼 때에, 엄청나게 온 세계가 다 뒤집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입장에서, 즉 현실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적 사실

로 볼 때는 내 전세문제는 전 세계 안에서 문젯거리도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받아들이는 현실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내 전세문제가 훨씬 더 큰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 마음에 전달 될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천국에 계신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 천국에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사실, 그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될 때에, 내가 감기 걸려서 열이 나가지고 불편하다는 그 현실보다도 작은 현실이 됩니다.
마음을 주기는 주지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업문제, 이 사업문제의 사실이 내 마음을 크게 주면서 엄청나게 큰 현실로 마음에 받아 들여 집니다.
내 자식문제가 현실로 받아 들여 집니다, 애인문제 집안문제 전세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받아들여질 때, 천국이 들립니다.
천국도 사실이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요만~큼 밖에 안 갑니다,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았던, 제일 작았던 현실이 겨자나무처럼 제일 큰 현실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주는 천국으로 바뀌어서, 그 천국이 제일 큰 현실로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뀌면 어떤 식이 되냐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치 이 땅에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에 상징이 될 수 있는 사건, 풍랑 만난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도 사실이고, 풍랑을 만난 바로 그 순간에도 천국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이 압도적인 현실로, 풍랑이라는 사실이, 풍랑이라는 Fact가 압도적인 현실로, Reality로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 일고 있지만, 풍랑보다 천국이 훨씬 더 큰 현실로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러니까, 하도 천국이 크다 보니까 겨자씨 나무처럼 크다 보니까, 그 겨자나무 밑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겨자나무 밑에, 3~4미터로 큰 겨자나무 밑에 있는 배추와 같은 게 뭐냐 하면, 풍랑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겨자나무처럼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풍랑이 배추처럼 느껴질 때, 잠을 못자는 게 이상한 거지요, 잠을 못자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풍랑이 겨자나무처럼 크게 보이고, 천국이 배추처럼 보이면 풍랑 만났을 때, 죽네 사네 아우성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Fact입니다.
근데 그 Fact 가 아~주 아주 적게 보여 갖고, 내 자본금 한 3억 정도 되는 사업채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라는 문제가 겨자나무처럼 크게 보이면, 그 사업의 흥망의 기운에 따라서 난리 블루스를 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업이 망하는 게 정말 큰일이냐, 아니에요.
내 마음을 그 만큼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지구가 티끌인데 이 티끌 같은 지구 외에도, 태양계를 지으시고 은하계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fact가 조금이라도 크게 보였다 그러면, 3억 자본금 집어넣은 아니, 삼성이 망한다 해도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천국대로 크게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삼성이 망한다 뭐 큰~일 난 것처럼 여기지마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천국이 가물~가물 해지면서, 바람에 등잔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천국이 까부라지는 것보다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 겨자씨처럼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룩 비유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
자! 우리는 마음이 천국으로 다 갔습니다.
천국을 크~게 느끼면서, 이 땅의 일들을 내 마음이 이루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이루고 싶겠어요, 천국이 겨자나무처럼 커져서 내 마음에 느껴지고 있고, 갖고 있게 됐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겠습니까?
바로 이때,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앉은뱅이를 일으켜 놓고도 사람들이 칭찬하고 숭배하려 그러면 말리고,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사람들을 피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제, 누룩이 가루 서 말 속에 번져 나가듯이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번져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나'라는 것은,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집합체입니다.

밀가루 서 말처럼, 대여섯 식구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 만큼의 밀가루 서 말 같은 덩어리인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의 총채입니다.
관계의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 천국이 들어와서 그 천국이 겨자나무처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실들보다도 큰 현실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전혀 이루고 싶은 게 없어지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난 이루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날 살려 두시는 거지요.
천국이 겨자나무처럼 자란 뒤에는 지금 죽는 게 최고에요.
근데 누룩처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안으로 누룩이 번져 나가듯이, 내 아내와 내 자식과 직장과 동료와 동창과 교회에서 집사님들과 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룩의 얘기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겨자씨처럼 들리는 천국이 그렇게 커질 수 있을까?
지금은,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 천억 원을 투자해서 벌었다라고 하는 그 천억 원과 내 주머니에 돈 만원이 있다면 그 만원, 만원이 훨씬 큰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비교도 안 되지만, 만원이 훨씬 큰 현실이거든요?
자! 이렇게 천국이 워렌 버핏의 천억처럼 느껴집니다.
엄청 큰 것이지만,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내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현실로 커지고 양식하듯이 커져 나갑니까?
내 마음에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이 땅에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연합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사실들에 대해 죽는 겁니다.
이 지구 위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실들이 현실로 바뀌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일어날 사건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유일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만을, 마음에서 이 세상의 사실들 중에서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선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천국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갖게 된다는 얘기에요.
계~~속 해서 이 세상의 사실들이 내 마음에 현실로 파고들려고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실들에 마음이 가는 것을 차단해 버리고, 마음이 그것에 대해 죽어버리면, 천국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아~! 이거 여러분, 여기에 투자 하는 거지요, 여기에 투자 하는 거지요!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게 살짝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거 다 내 거로 착복하게 되요, 마지막에는.
그거 안 되는 거지요.
완전히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누룩이에요.

천국은 자연산으로 두면 안돼요.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계~속 내 마음에서 키워져 나가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크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도 먹이를 주지 내가 크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주어지는 사실들에 대해서 죽기만 하면, 천국은 저절로 커져 나갑니다.
이 천국이,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 반드시 성취하시고 멋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땅에서 5감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모든 사실들이, 내 마음을 먹고 현실로 바뀌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 사실들에 대해 내 마음이 죽음으로써, 오직 겨자씨처럼 작게 들리는 천국이라는 사실만이 점점 더 커져, 겨자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